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이순신 정신 제대로 보여줄 것”

영화 ‘명량’ 순천 출신 김한민 감독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누구나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안다고 착각하면서 화석화된 인물이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사극을 만든 배경을 물었더니 대답이 같은 말이 돌아왔다. 김한민 감독의 머릿속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떠오른 건 2007년 무렵이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군인데도 그가 지휘한 해상전투를 영화에서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는 데 착안했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적선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보여주기식’ 전투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다. “이순신의 정신”을 전투에 구현 하자는 생각이 컸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백의종군(白衣從軍) 후 이순신이 화려하게 복귀하는 ‘명량해전’에 있었다.

순천 출신 김한민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순신의 애민 정신과 의지를 표현하다 보니 61분이 됐다. 전투만 무조건 보여 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해상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핵심이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이 들어가는 건 필수불가결했다. 이순신 정신을 캐릭터뿐 아니라 전투 그 자체에 담고자 했기에 기존 화술로는 펼쳐내기 어려웠다. 규모도 화법도 투자자들에게 생소했다.

김 감독은 700만 명을 돌파한 전작 ‘최종병기 활’(2011)이 없었다면 ‘명량’은 “어렵도 없는 프로젝트였다”고 했다.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드라마가 60분, 해전이 60분인데, ‘캐릭터가 드라마에서 완성돼야 하는 것 아닌가? 캐릭터가 드라마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왜 드라마와 해상 액션을 나눠서 보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순신 캐릭터는 해전까지 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어요.”

어렵사리 투자자들을 설득해 영화를 촬영했다. 찍는 것도 어려웠지만,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힘드기는 매 한가지였다.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이 많았고, 음향을 수정하는 작업 등 제작업이 이어졌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작업의 연속이었다. “CG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작업하면서 소통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배의 소리나 바닷물 소리를 섬세하게 잡아내야 하니 할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끝없는 제작업의 연속이었죠.”

1년여 간의 반복 작업 끝에 언론 배급 시사 하루 전에야 가까스로 후반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로 ‘영화의 올바른 돈을 찾아가는 게 어려웠다. 정공법을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감독의 업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난관은 이순신을 구현할 배우를 찾는 일이었다. 서



〈김한민 감독〉

울 광화문 동상에 갇혀 있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살아있는,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 그가 찾은 최선의 카드는 최민식이었다. 처음에는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2011)에서 최민식과 함께한 윤종민 감독과 함께 그를 찾았고, 두 번째는 단독으로 그를 만났다.

“밥도 먹고 술도 마셨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최민식 씨는 인물에 대한 몰입도가 매우 높은 배우입니다. 내공이 깊은 배우죠. 이순신을 연기할 배우는 최민식 씨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촬영현장에서 어느 순간 그는 이순신으로 빙의했죠.”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이순신일까.

“우리는 지금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통합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구심점을 어떤 인물에서 찾다면 훨씬 더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순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0일 개봉. /연합뉴스

홍상수 ‘자유의 언덕’ 베니스 영화제 경쟁부문에

임권택 ‘화장’·김기덕 ‘일대일’ 도 초청

홍상수 감독의 ‘자유의 언덕’이 다음 달 열리는 제71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오리존티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또 임권택 감독과 김기덕 감독, 미국에서 활동하는 김소영 감독의 신작도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24일 베니스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유의 언덕’은 새로운 경향의 영화를 소개하는 오리존티 부문에 진출했다. 영화는 옛 사람을 찾아 한국을 찾는 일본인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일본의 가세료를 비롯해 문소리와 김의성 등이 출연한다.

임권택 감독의 ‘화장’은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이 부문에는 올리비아 자이틀·라스 폰 트리에·가브리엘 살바토레·피터 보그다노비치 등 거장 감독의 신작과 배우 제임스 프랭코가 연출한 영화가 포함됐다.

‘화장’은 암에 걸린 아내를 성심성의껏 간호하면서 유능한 부하직원 추은주를 갈망하는 오상무의 심리를 그린 작품으로, 김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안성기·김규리·김효정 등이 출연한다.

김기덕 감독은 ‘일대일’로 베니스 데이즈에 초청받았다. 2012년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받고 나서 3년 연속 베니스 행이



〈임권택 감독〉



〈홍상수 감독〉

다. 황금사자상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경쟁부문에 파티 아킨 감독의 ‘더 컷’을 비롯해 아벨 페라라의 ‘파솔리니’,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의 ‘버드 맨’,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의 ‘더 포스트맨 화이트 나이트’, 츠카모토 신야의 ‘노비’, 왕 사오슈 아이의 ‘레드 엔지니어’ 등 20편이 진출했다.

한국영화는 2년 연속 이 부문에 초청받지 못했다. 칸,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국제영화제로 평가받는 베니스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27일부터 9월6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 리도섬 일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BS ‘다큐프라임’ 3부작 ‘미래를 바꾸는 교육’



28~30일 방영

EBS TV ‘다큐프라임’은 오는 28~30일 오후 9시50분 3부작 ‘미래를 바꾸는 교육’을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실험을 통해 살펴본 자연주의 교육, 디지털 육아, 경제교육의 효과와 비밀을 전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1부 ‘자연, 성장의 밑거름’에서는 자연주의 교육을 실천하는 일반 후바타 보육원을 찾아가는

이곳 아이들은 맨발로 등원해 맨발로 생활한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은 맨발로 진흙탕을 거어다니고, 그보다 큰 아이들은 맨발로 모래 위를 뛰어다니며 하루를 보낸다. 오감을 통해 뇌 발달을 촉진했다는 것이 이곳의 교육이념이다.

2부 ‘디지털 육아의 비밀’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의 뇌 발달과 인지 정서 조절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공실험, 인지조절 실험 등을 통해 검증해보고, 디지털 기기에 빠진 유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제작진은 서울, 경기 지역 영유아의 부모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세 때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쥐어 주는 무려 23.6%에 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소아학회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은 만 2세 이하에게는 TV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컴퓨터 등 모든 디지털 기기를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태어나서 24개월간은 뇌 발달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쥐어 주는 것은 아이들의 인지, 정서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3부 ‘경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힘’에서는 윤희운을 정기적으로 보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 주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연합뉴스

EBS

Table with 3 columns: 05:00, 09:40, 14:30, 19:00. Lists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time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00:00, 11:40. Lists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tim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07:00, 16:00. Lists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8일(음 7월 2일 庚子)

36년생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48년생 하정을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60년생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72년생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의 관점이다. 84년생 막연히 추측하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85, 91

42년생 만류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다. 54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다. 66년생 더 할 수 없이 경사스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78년생 기하다 싶으면 확실히 붙잡아라. 행운의 숫자 : 77, 69

37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49년생 노출하지 말라. 61년생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느니라. 73년생 기다리던 소식 대신 더 중대한 상황에 이른다. 85년생 귀를 기울이고 들어 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5, 40

43년생 숙명적으로 상태를 설득시켜야 할 형편에 놓일 것이다. 55년생 파격적인 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67년생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79년생 눈앞에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니 면액할 길을 찾아라. 행운의 숫자 : 45, 19

38년생 낙수물도 반복 되면 땀을 뚫는 법이다. 50년생 필히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심하라. 62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74년생 시작이 올바르게 성과가 좋다. 행운의 숫자 : 22, 06

44년생 원상으로 복구하게 되어 있다. 56년생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한다. 68년생 괜히 나서서 개성하려다가 오히려 실갈할 수다. 80년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도를 조절하라. 행운의 숫자 : 63, 25

39년생 바람직한 영국으로 펼쳐지고 있으니 당당하게 나서도 되는 때이다. 51년생 사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63년생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75년생 만족도 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라. 행운의 숫자 : 48, 60

45년생 시도한다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판세가 조성되어 있느니라. 57년생 앞당기어 버릴 수도 있으니 대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69년생 초기의 효력이 유지되겠다. 81년생 단도직입적으로 풀어나가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72, 36

40년생 흠뻑 취해서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52년생 장래의 길흉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64년생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점차 적응하게 되리라. 76년생 답답하겠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31, 80

46년생 한정된 것이니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58년생 지름길로 가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다. 70년생 한 차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나. 82년생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감정을 엄격히 구분하라. 행운의 숫자 : 37, 02

41년생 생활에 활력소가 될 만한 일이 보인다. 53년생 서로 간의 처지가 뒤바뀔 수도 있느니라. 65년생 기본적인 관계를 원만히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77년생 새로 생기는 것보다 기존의 것이 훨씬 낫다. 행운의 숫자 : 09, 55

47년생 전례대로만 행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59년생 과거에 만난 인연이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 71년생 중대한 소임을 맡게 되는 대국에 이르렀다. 83년생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마음 놓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5, 7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